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에 관한 사서의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Librarians' Perception about the Changing Role of University Libraries

노영희 (Younghee Noh)*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있는 대학의 환경을 반영하고, 정보기술의 발전을 반영함으로써 대학을 리드하는 기관으로서 우뚝 서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빅이슈가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 평가 및 평가지표,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가치,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기능변화라고 하였고, 대학의 환경변화,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 각종 국책사업, 각종 구조개혁이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하였다.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로 학생의 정보자원 및 기술의 활용능력 향상,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 대학구성원의 연구능력 향상,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가장 높게 요구하는 서비스를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university library to find out a strategy to stand tall as an institution to lead the university, by reflecting the university environment having with drastic environmental changes and reflecting the evolu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s a result, first, university librarians responded that big issues related to the university library is the University Library Promotion Act, University Library evaluation and assessment indicators, the value of university libraries at the university, and changing spatial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the university library. Second, university librarians responded that changes of the university environment,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ies, various national projects, and various university reform policy significantly affect to the university library. Third, about what you think would be helpful to the crisis in their universities as changing role of the library, they responded that they can contribute in terms of improving students' information and technology literacy, improving students' reading skills, improving research capacity, and improve students' learning ability. Fourth, they responded that services that users demand the highest in the university library will be expansion of e-books and information resource.

키워드: 대학, 대학도서관, 역할변화, 환경변화
universities, university library, changing role of university library,
environmental changes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논문접수일자: 2016년 5월 14일 ■ 최초심사일자: 2016년 5월 25일 ■ 게재확정일자: 2016년 6월 17일
■ 정보관리학회지, 33(2), 227-256, 201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2.227]

1. 서론

대학도서관은 대학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모 기관인 대학의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에 도입되는 기술, 서비스의 변화, 이용자의 요구변화 반응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정책이나 대학정원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 대학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대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입학정원의 급격한 감소, 이로 인한 정부의 구조개혁 요구 등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관은 역할변화를 통해서 학생과 교수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KOCW(Korea Open CourseWare) 및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강의자료가 전 세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일보의 대학평가에서도 이러닝콘텐츠 강좌공개점수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다. 201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이러닝공개콘텐츠의 비중을 2014년보다 2배로 높인 것도 교육부의 정책이나 세계적인 교육개발환경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의 일반화도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제 대학생들은 무거운 책 대신에 전자책 리더 및 아이패드만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며, 액티브하고 멀티미디어적인 강의자료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은 수업 관련 자료를 텍스트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전자책 및 전자저널, 그리고 각종 멀티미디어적 학습자료들을 다양

하게 준비하고 강의실에 제공해야 한다. NCSU(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도서관이 4개 벽면전체를 고해상도 대형스크린이 구비된 강의실 환경을 준비하고 화학원소, 디자인을 포함하여 각종 멀티미디어 활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발전하는 기술변화를 도서관에 반영한 사례가 된다.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은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평가 및 각종 외부평가에서는 도서관 자체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는 편이며, 오로지 장서의 수만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성과 및 프로젝트 수주능력, 학생들의 학습역량은 도서관의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강화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자원이 대학의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상아탑으로서, 그리고 대학의 심장으로서 대학구성원의 지적능력 향상, 연구능력 강화, 인성능력, 독서능력 강화 등에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도서관에 적용될 수 있는 수많은 정보통신기술, 지역사회 요구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정부정책이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대학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고 교육의 목표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배출하고자 하는 학생 역량의 재정립과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기관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은 모기관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고, 도서관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2).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 학습, 서비스, 연구 부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해내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Mathews,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있는 대학의 환경을 반영하고, 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함으로써 대학을 리드하는 기관으로서 우뚝 서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대학도서관은 미래지향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고, 변화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관련 연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연구의 계량적 분석,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핵심이슈, 그리고 대학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등이다.

2.1.1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연구의 계량적 분석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편이다. 2015년에 수행된 이혜영 연구자에

의하면(이혜영, 2015),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4개의 주요 학회지의 논문을 분석해 보았을 때, 대학도서관에 대한 연구(332건, 32.5%)가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구(418건, 40.9%)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에 관한 연구의 세부 주제를 보면, 도서관경영, 정보학, 도서관서비스,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관체제, 자료조직, 도서관 건물 및 설비, 기록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방법으로 진행된 정재영과 박진희(2011)의 연구에서는 도서관 운영, 정보봉사,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이용자교육, 장서개발, 전문성, 자료조직, 저작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 및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발행되는 연구논문을 분석한 연구(김용근, 2003)에서는 대학도서관 경영(33%), 정보시스템(22.6%), 문헌정보학 일반(16.3%), 자료조직(10.9%), 참고정보서비스, 정보처리, 서지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2.1.2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핵심 이슈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문제나, 이슈, 또는 트렌드를 분석한 논문이나 관련 기사들이 있다. 2015년의 상위 핵심 이슈로 Bell(2015)은 대안적인 고등 교육, 직원의 포지션 변화, ACRL 정보 활용 능력 프레임워크, 개방으로의 전환, 디지털 교육, 접근성, 도서관 공간, 전자책, 학생 데이터, 리더십 등의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에서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2011년 미조사) 대학도서관관련 이슈들을 정리하여 상위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0년의 이슈와 2014년의 이슈는 확연히 다르고, 해

마다 관심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그리고 2009년에 Martinez-Uribe와 Macdonald는 21세기 대학도서관은 기

술 변화, 예산 제약, 저작권 및 라이선스, 또는 사용자의 행동과 기대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표 1〉 대학도서관에 대한 연도별 이슈

연도	이슈	출처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요구기반 장서증가 및 새로운 자원형태의 수집 - 예산에 대한 도전 - 고등교육의 변화는 사서가 다양한 기술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 - 책임 및 평가에 대한 요구증가 - 특성화장서의 디지털화 및 자원공유의 확대 - 모바일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폭발적 증가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요구 - 협력강화로 도서관의 역할확대 - 학술커뮤니케이션 및 지적재산권서비스의 개발 - 기술의 발달로 도서관 서비스와 기능의 변화 - 가상공간을 포함하는 도서관공간개념의 확대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0)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것의 가치 - 데이터 큐레이션 - 디지털 보존 - 고등 교육 - 정보 기술 - 모바일 환경 - 이용자 중심 전자 책 수집 - 학술 커뮤니케이션 - 직원개발 - 이용자행동과 요구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2)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 교육 동향(고등 교육시장의 형성, 고등 교육기관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MOOCs의 등장, 디지털인문학과 교양과목) - 직업의 미래(내부개혁, 연구 데이터 서비스, 콘텐츠생성, 협업 공간 만들기 및 관리, 문헌정보학 교육개혁) - 학술커뮤니케이션(탐색행태와 요구, 새로운 출판포맷/큐레이션/배포, 오픈액세스) - 급진적 협력(기술서비스의 급진적 협력, 장서구축 및 자원공유의 급진적 협력, 대규모지역단위 인쇄리포지터리의 급진적 협력) - 기술(웹툰, 태블릿, 스마트폰, 클라우드의존성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학습분석) - 평가와 회계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3)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치 중립 디지털 서비스 - 고등 교육 개방의 발전 - 학생의 성공 전략 - 역량 기반 학습 - 비전통적 통계 - 디지털 인문학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4)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적인 고등 교육 - 직원의 포지션 변화 - ACRL 정보 활용 능력 프레임워크 - 개방으로의 전환 - 디지털 교육 - 접근성 - 도서관 공간 - 전자책 - 학생 데이터 - 리더십 	Bell (2015)

2.1.3 대학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와 관련된 연구

대학 및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은 물론 사서의 역할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들도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Macdonald와 Martinez-Uribe(2010)은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오픈 액세스의 도래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은 디지털 리포지토리를 구축하고 셀프 아카이빙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도서관은 연구과정 중 생산된 데이터의 가치가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므로 데이터 큐레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입학경쟁력이나 학생유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Bell(2008)은 대학이라는 기관에서 학생유지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대학 행정이 학생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마술같은 공식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친구나 교수 등과 관계맺기에 실패한 고립된 학생들은 자퇴의 높은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결론지었다(Primary Research Group, 2008). 대학도서관에게는 대학생들이 이러한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숙제가 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도서관은 학생유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즉 학생당 도서관 예산 및 자원, 직원 수는 학생유지비율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Hamrick, Schuh, Shelley, & Mack, 2004; Mezick, 2007).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대학의 제한된 예산을 고려할 때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이 더 투입되

지 않고 학생유지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Bell(2008)은 학생의 유지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첫째, 개인화된 연구지원과 개별적인 관심, 둘째, 학생의 학술적 성공의 핵심 기여자로서 연구능력구축, 셋째, 학생을 도서관의 서비스·자원·직원에게 만족하도록 연결하는 데이터 제공, 넷째, 학생이 졸업까지 도서관이 기여하는 노력의 결과 증명, 다섯째, 학생의 성공을 지원함에 있어 도서관이 학부모와 같이 하는 방법의 탐색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도서관의 역할이 장서제공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을 분석해보면, 도서관 경영 및 운영, 정보시스템, 참고정보서비스, 자료조직 등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경영이나 운영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의 연구통계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도서관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모든 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은 대학내외의 환경변화 및 기술적인 환경변화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환경변화, 특히 대학도서관의 모체 기관인 대학내외의 환경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2 대학도서관 환경변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이

슈는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이슈를 추출하고 이에 대해 5년간의 차이를 두고 가장 큰 변화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2.1 고등교육환경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저하,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 대학재정의 위기, 정부의 규제강화, 취업난 등일 것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입학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2023년에는 대학입학자원이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재정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간에는 경쟁을, 정부는 규제강화를 통한 대학의 질제고와 부실대학의 정리를 진행하게 된다. 부실대학의 정리는 사실상 미국처럼 사회수요접근법(social demand approach)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수요접근법(manpower requirements approach)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자는 인구의 자연증가추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교육의 양을 증대시켜 나가려는 방법이지만, 후자는 국가의 경제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이수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인력에 대한 장기수급전망에 기초하여 국가수준의 고등교육 인력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상주, 2013).

입학자원의 감소와 함께 고민이 되는 것은 이 탈학생문제,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Bell, 2008). 이는 학

교에 대한 부적응, 친구관계 맺기 실패, 전공 적성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 대학도서관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규교육과정 및 대학의 각종 프로그램 내에서도 아니라 어떠한 장벽도 없이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2.2 빅데이터

가트너가 선정한 2012년 10대 전략 기술에서 빅데이터는 '인-메모리 컴퓨팅, 차세대 분석기술'로 소개되었고,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10. 2)에서는 전 세계 환경, 에너지, 식량, 의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맥킨지 보고서(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6)에서는 경쟁력 확보, 생산성 개선, 사업혁신, 신규사업 발굴의 원천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 노령화, 다문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 지구환경변화 및 안보와 테러위험 등 불확실성의 증가, 구제역 및 사스 등 고위험 사회가 될 미래사회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관리하고자 함이다.

이처럼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현재로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와 KT가 데이터융합을 통해 예상수요기반 최적 노선 추천서비스를 개발한 사례, 국민건강주의예보서비스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사례,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점포평가서비스 사례, SNS를 활용한 지진 및 태풍 예보서비스 사례, 기업위기관리 및 마케팅 분야에서 SNS를 활용한 사례 등 수없이 많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 활용가능 분야로, 시민

목소리 이해분야, 사회이슈분석, 기관 및 인물 평판분석, 의료 및 복지서비스 강화, 국가 R&D 전략분석, 맞춤형 민원서비스, 교육정책 및 현안 분석 분야 등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빅데이터는 기존 DB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다양한 유형의 실시간 데이터 집합이며, 빅데이터 분석은 시간, 공간, 그 외 조건들의 변화에 따른 빅데이터 분포와 데이터 간의 상호 관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함으로써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 세상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에 있어 빅데이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는 본래 도서관은 빅데이터를 저장하던 장소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송민, 2014.7.1). 도서관에 빅데이터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영국국립도서관과 구글의 1억 5,000만권을 목표로 한 중세 고문서 디지털화 프로젝트(The British Library, 2011.6.20.), 미국 의회도서관의 트위터 영구보존 프로젝트, 유로피아나의 모바일과 PC 이용자 로그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파악하는 유럽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Europeana Connect, 2011), 미국 내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의 디지털 자료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DPLA(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프로젝트(Roscorla, 2013.4.17) 등이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송민(2014.7.1) 연구자는 도서관 내의 빅데이터 큐레이션 사업,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메타데이터 및 목록 표준화 사업, 도서관 자체를 빅데이터 플

랫폼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획기적인 역할변화를 위해 훨씬 폭넓게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각종 연구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가 거의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통한 교수들의 연구과정 지원방안에 대해 'Data Scientist'로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각종 이용행태분석 결과가 대학의 요구와 필요에 직접적인 기여가치가 없다면 이 또한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이다. 도서관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 내야 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를 잘 활용하여 대학도서관의 역할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3 정부 3.0과 공공데이터

최근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공데이터가 대량으로 공개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여 창업에 성공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앱을 개발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앱 등이 수없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Thorin과 Greenstein(2002)이 디지털도서관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핵심 도전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의 문화적 지원, 법적 지원, 그리고 자금지원제도가 향후 디지털도서관의 역사와 발전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논하게 된 것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현장경험을 통해 느꼈기 때문이다.

정부 3.0 정책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도서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학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공영역에 속하는 도서관이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도서관 및 도서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개목록은, 주로 특정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록, 특정 지역의 도서관 현황에 관련된 자료, 그 외 도서대출순위정보, 도서관프로그램 및 강좌정보, 전자책 현황, 특정 구역 장서통계, 사서추천도서DB, 신착도서 현황, 도서관동아리 현황, 도서관위치정보, 출판예정도서정보, 목차/초록 등의 자료 등이다. 그러나 RISS, DLS, KOLIS-NET을 통해서 관종별 도서관종합목록에 접근할 수 있고, 도서관프로그램이나 강좌정보도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획기적인 내용의 공개와 활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현재 공개된 19,000여 건의 공공데이터를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구성원에게 서비스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노영희, 2016), 사서들의 43.6% 정도가 정부 3.0 정책이 도서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도서관에서 정부의 3.0 정책에 의해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테마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 공공데이터 활용앱을 개발하는 방법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전문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기법에 대한 특강 및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창업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제공서비스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2.4 MOOC 등을 통한 고등교육 개방

유명 대학교수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MOOC가 고등교육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Russell, 2014, April 29). MOOC는 온라인 고등교육 시장에서 누구에게나 저렴한 비용으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edX, Udacity, Coursera 등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MOOC형 강의들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무크(K-MOOC)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서울대, KAIST 등 10개 국내 우수대학의 총 27개 강좌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500개 이상의 강좌 운영을 목표로 매년 강좌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MOOC를 통해 고등교육이 개방되고, 어쩌면 대학의 교육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은 이에 대비해서 어떤 역할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도서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MOOC 학습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MOOC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강의보조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해 주는 방법, 그리고 강의관련 동영상 자료를 확보해 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2.2.5 디지털교과서와 디지털 교육

MOOC가 대학교육의 개방이라면,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교육매체, 디지털 기술, 디지털교과서 등이 이용가능한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되는 디지털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디지털교육콘텐츠 UI, 디지털교육매체디자인,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개발 및 설계, 스마트교육, 디지털시대의 독서, 디지털시대

교사교육, 디지털 스토리텔링, 디지털시대 문학 교육, 디지털시대 건축교육, 디지털시대 고전문학교육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대안이 나름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문화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도서관은 대학교육을 어떻게 지원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설계 지원, 스마트 교육환경 지원, 디지털독서환경 제공,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글쓰기 역량 지원, 디지털인문역량강화 지원, 디지털큐레이션 교육프로그램 제공, 디지털환경 기반 교육과정 설계 지원, 대학교육에서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전략 등은 대학도서관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대학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도서관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2.2.6 창조경제 무한상상실 조성사업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창조경제는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 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이다. 이러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공간, 국민의 아이디어를 신장시키는 물리적 공간을 무한상상실로 보고, 2017년까지 전국 227개 시군구 당 1개소 이상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현재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대학도서관 등에 많은 무한상상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서들은 이용자들의 상상 및 창

의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 시상, 아이디어오디션, 무한상상 아이디어 페어, 그리고 과학자의 아이디어 뱅크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인자, 최상기, 노영희(2014)는 무한상상실에 대한 개념 및 특징, 기능 등을 도서관측에서 명확히 제시하는 연구를 하였고, Camoprodon, Bigazzi, Pineda, Tham, & Sullinai(2013)는 2013년 11월 열린 컨퍼런스에서 'Coworking and Makerspaces'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태그 셋을 사용하여 표현했는데, 가장 핵심 키워드인 'community'가 가장 중앙에 크게 위치하고 개방(open), 공유(sharing), 협력(collaboration), 스타트업(startup), 네트워크(network), 제작자(makers),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등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영희(2014a)는 국내의 무한창조공간 구축 사례 및 모든 선행연구자료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에 대한 역할개념을 총 12가지로 도출했다. 즉, 사회소통공간으로서의 무한창조공간, 학습공간, 창조자원을 공유하는 공간, 관심주제탐색공간, 직업탐색 및 창업지원공간, 작가발굴 및 양성공간, 자기출판공간, 인큐베이터로서의 공간, 창조를 위한 협력공간, 창조를 위한 장비체험 및 활용공간,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공간, 전문가멘토링 및 컨설팅이 있는 공간 등이다. 여러 문헌에서 소개되었듯이 영국 및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Makerspace 또는 Hackerspace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이용자의 참여도 및 반응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정책은 도서관 공간의 기능 변화, 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다양한 전공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3D 프린터를 갖추고 대학마다 다른 전공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자연과학과 공학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공학과 사회과학이 만나서 융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융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도속에서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의 반발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도서관은 무한상상실을 통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융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존재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에서 무한상상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이디어 실험, 연구개발, 기술개발, 학생과 기업의 만남, 시제품제작, 상품기획, 지적재산권 출원, 창업지원, 융복합콘텐츠개발, 앱개발, 상상스토리텔링, 각종 실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과 대학간의 공유 등이다.

2.2.7 급격한 기술발전과 도서관

도서관은 외부의 환경에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는 조직이다. 대학도서관은 모체기관의 구조개혁 및 학사구조조정, 그리고 정책변화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대학도서관이 모체기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밖에서 개발된 각종 최첨단 기술들을 어느 조직보다 빠르게 도입하고 적용해야 한다. 대학 내 조직에서 최첨단 기술의 적용을 통한 서비스 개선에 신속하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직은 대학도서관이다. 대학의 어떤 조직도 대학도서관만큼 신기술의 적용에 있어 개방되어 있는 조직은 없다.

웹 4.0개념이 적용된 도서관 4.0(Library 4.0), 차세대디지털도서관에 적용된 또는 적용될 기술로 Kroski(2009)는 모바일(새로운 서비스와 기본기술, 모바일콘텐츠, 새로운 전송포맷, 모바일 앱), 소셜(소셜과 도서관 웹사이트, 매력적 경험, 협력과 사회사업), 오픈(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오픈콘텐츠)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음 세대의 디지털도서관의 핵심영역은 시맨틱웹, 집단화, 클라우드컴퓨팅, 라이프 스트리밍(블로그 글 또는 온라인 사진을 모으거나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개인의 일상생활을 온라인으로 기록하는 것), 필터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ALA(2014)에서는 도서관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로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소싱, 오픈소스개발, 비용효과적인 온라인교육을 선정하고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혁명적으로 도서관에 적용한 5개의 우수사례를 제시하였다.

노영희(2014b)는 차세대디지털도서관의 발전방향논의에 관한 연구에서 클라우드서비스, 무한창조공간, 빅데이터, 증강현실, 구글글래스, 상황인식기술, 시맨틱서비스, SNS서비스, 디지털교과서서비스, RFID 및 QRCode 서비스, 도서관공간구성, 최첨단디스플레이기술, 기타 획기적인 서비스 등을 들로 하는 서비스내용을 도출하였다. 차세대디지털도서관서비스에 대한 Y세대 이용자의 요구분석 연구에서는(노영희, 2014a, 2014c), 13개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서비스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빅데이터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시맨틱서비스 및 링크드데이터서비스, 구글클래스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영희는 도서관 4.0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Intelligent, Makerspace, Context-Aware Technology, Open Contents, BigData, Cloud Service, Augmented Reality, State-of-art Display, Librarian 4.0을 도출하였는데(Noh, 2015), 이러한 기술을 도서관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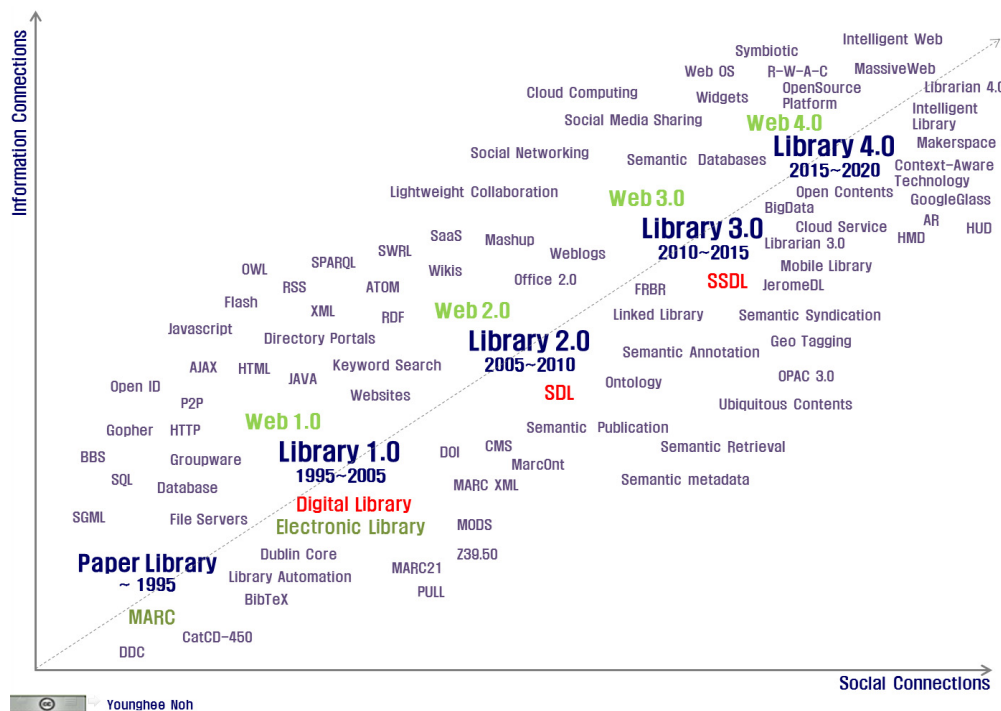
이렇게 차세대 디지털도서관에 요구되는 기술을 도서관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론에 지나지 않고 남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기

술은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2.2.8 역량기반 학습과 학생의 성공지원

역량기반 교육과 학습은 현 시대의 교육코드가 되고 있으며, 각종 교육부 평가에서는 대학의 교육이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은 대학의 인재상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대학의 모든 교과, 비교과, 교양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대학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그림 1> 도서관 4.0까지의 발전과정
(출처: Noh, 2015)

하여 운영할 때, 어떤 부분에서 학생의 역량기반 학습과 학생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학생의 글쓰기 역량, 정보활용역량, IT 역량, 독서를 통한 인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대학생의 핵심역량진단도구인 K-CESA의 핵심역량은 의사소통역량, 종합적 사고력,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글로벌역량,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마다 추구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지만, 대학도서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각 대학이 추가하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정보자원활용능력향상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활용프로그램, 각종기술습득프로그램, 최첨단 기술비치를 통한 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다문화관련 각종 문헌 및 자료가 비치된 세계문화자료실을 구비하여 글로벌역량 향상지원, 각종 직업탐색에 도움이 되는 장서가 비치된 공간을 마련하여 자기관리역량을 지원할 수도 있다. 역량기반 학습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는 도서관에 있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2.9 사서의 역할변화(직원개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이용자의 요구도 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 직원도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2013년 ACRL 컨퍼런스에서는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40개의 태그가 참여자들에 의해 생성되었는데, 그 중 5개가 직원과 관련된 문제로서, 계속교육, 전문성 개발, 직원채용에 대학 전략적 및 창조적 접근, 기존포지션의 재편성, 조직의 현 상황에 맞도록 직원 재훈련 등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큐레이션, 디지털 자원 관리 및 보존, 평가, 학술커뮤니케이션, 교수학습의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직원이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되었다(Bell, 2009). 사서는 항상 10년 후의 도서관의 모습을 생각하고 오늘을 준비해야 한다. 차세대 디지털도서관 환경에서 전문사서는 이와 같은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 그리고 지식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3.1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서들은 대학 및 대학도서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모체기관에 직면한 문제가 대학도서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RQ 1: 대학도서관사서는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RQ 2: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RQ 3: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가장 높게 요구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RQ 4: 대학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의 역할변화로 소속대학의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미국에서도 매년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이슈들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사서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가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에 계도 해당되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3.2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을 4년제 국·공립도서관,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전문대학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각 대학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을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터 53개의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 198개의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138개의 전문대학도서관(국립, 공립, 사립)의 목록을 확보하였다.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의 경우 타 대학도서관 유형에 비해 그 전체 수가 적어 53개 전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도서관의 경우 국·공립대학도서관 수에 맞추기 위해 30%에 해당하는 도서관을 'Every 3rd' 방법으로 설문대상을 확정하였다.

설문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방법으로는 온라인 설문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메일과 전화로 설문이 의뢰되었다. 그 결과 4년제 국·공립도서관 33부(62.2%),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35부(66.1%), 전문대학도서관 36부(87.8%)가 각각 회수되었으며 총 153부 중 10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응답률은 67.9%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주제에 대하여 사서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타 의견에도 이례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3.3 설문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2015년 빅이슈,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 기타의견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서에 대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그리고 기타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기타의견은 대학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2015년 빅이슈에 대한 의견,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대학도서관 환경변화 및 역할변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성별, 연령, 소속대학도서관의 유형, 근무경력
2015년 빅이슈	2015년 한국 대학도서관에서 가장 큰 이슈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모체기관인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관련성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들은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속 대학의 각종 사업(ACE, LINK, CK 등 국책사업)이나 교육부의 각종 구조개혁 등의 회의 참여경험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동의정도(사회적 요인)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동의정도(기술적 요인)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요구하는 서비스
	대학도서관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의 문제들
	강화되어야 할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도서관의 역할변화가 소속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대학도서관의 위상강화를 위한 역할변화 노력
기타의견	기타 대학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의견

4. 결과

4.1 응답자의 개인적인 배경

대학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대해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수행했으며, 설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보면 〈표 3〉과 같다. 성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남자 43.27%, 여자 56.73%로 나타나 성별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9세 9.62%, 30~39세 23.08%, 40~49세 47.12%, 50세 이상 20.19%로 나타났다. 소속된 대학도서관 유형별로 보았을 때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 31.73%,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33.65%, 전문대학도서관(국공립, 사립 모두) 34.62%로 나타나 균등한 분포를 보였으므로 상황 및 환경이 다른 대학도서관 소속 사서들의 의견을 골고루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근무경력을 보았을 때, 20년 이상 25년

미만 응답자가 2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1.15%,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7.31% 순으로 나타났다.

4.2 2015년 대학도서관의 빅이슈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에서는 매년 대학도서관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고, Bell (2015)도 2015년의 대학도서관 이슈를 10가지로 정해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104명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2015년 한국 대학도서관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분석, 기사 분석 등을 통해 총 16개의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 중 상위 5개만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빅이슈가 될 항목이 있다면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23%가 대학도서관

〈표 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항목		N	%
성별	남	45	43.27
	여	59	56.73
연령	20~29세	10	9.62
	30~39세	24	23.08
	40~49세	49	47.12
	50세 이상	21	20.19
소속된 대학도서관 유형	4년제 국, 공립대학도서관	33	31.73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35	33.65
	전문대학도서관(국립, 공립, 사립)	36	34.62
직장 근무 경력	5년 미만	13	12.50
	5년 이상~10년 미만	18	17.31
	10년 이상~15년 미만	9	8.65
	15년 이상~20년 미만	22	21.15
	20년 이상~25년 미만	28	26.92
	25년 이상	14	13.46

〈표 4〉 2015년 한국 대학도서관의 가장 큰 이슈

항목	N	%	순위
대학도서관진흥법	98	94.23	1
MOOC 및 KOCW	35	33.65	공동 6
대내외 각종 대학평가(대학인증평가, 중앙일보평가)	67	64.42	2
디지털교과서 및 전자책	11	10.58	12
디지털화된 교육(e-learning 포함)	10	9.62	13
무한상상실	1	0.96	16
빅데이터	25	24.04	9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7	6.73	15
각종 정보기술의 발전	16	15.38	11
도서관간 협력	21	20.19	10
데이터 큐레이션 및 디지털 보존	8	7.69	14
직원개발 및 사서역할변화	32	30.77	8
대학도서관 평가 및 평가지표	66	63.46	3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기능 변화	39	37.50	5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가치	46	44.23	4
역량기반 대학교육의 변화와 대학도서관 역할변화	35	33.65	공동 6

관진흥법이 2015년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였고, 다음의 이슈는 대학인증평가 및 중앙일보평가 등 대내외 각종 대학평가가 64.42%였으며, 대학도서관 평가 및 평가지표 63.46%,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가치 44.23%,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기능변화 37.5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문헌정보학계 및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한상상실이나 정부 3.0 및 공

공데이터, 디지털교과서 등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체감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중앙일보평가에서도 그 지표의 가중치가 2배로 증가한 이러닝기반 교육부에서 대학도서관이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9.62%만이 이러한 이슈가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기타 의견으로 자료가격인상, 전자저널 구독 금액 상승과 구독관련 문제, 도서정가제 등에 의견이 각각 1건씩 있었다.

4.3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관계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 간의 관련성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총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즉, 모체기관인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관련성,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들이 도서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소속 대학의 각종 사업(ACE, LINK, CK 등 국책사업)이나 교육부의 각종 구조개혁 등의 회의에 참여경험이 있는지,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등이다.

4.3.1 모체기관인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관련성

대학도서관의 모체기관인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78.8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4.8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평균은 4.087로 높게 나타났다. 즉 사서는 모체기관인 대학의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대학도서관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대학도서관 모체기관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과의 관련정도에 대한 남녀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여자는 4.102, 남자는 4.067로 여자가 남자보다 그 관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p*값은 0.064로 유의도 0.05% 하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소속 대학도서관 유형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이 4.343으로 가장 높게 그 관련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은 3.8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의 경력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25년 이상의 경력자가 4.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년 이상 20년 미만 4.318, 10년 이상 15년 미만 4.111 순으로

〈표 5〉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의 관계

항목	N	%	M	Std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4.087	0.837
그렇지 않다	5	4.81		
보통이다	17	16.35		
그렇다	46	44.23		
매우 그렇다	36	34.62		
합계	104	100.00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경력이 많을수록 그 관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들은 도서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79.81%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오직 3.85%만이 그러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4.019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이에 대해 성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여자(4.102)가 남자(3.911)보다 그 영향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이 4.0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이 3.97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들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5년 미

만의 경력자가 4.308로 가장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4.222, 15년 이상 20년 미만 4.045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 소속대학의 국책사업 및 구조개혁위원회 참여경험

도서관의 직원으로서 소속 대학의 각종 사업(ACE, LINK, CK 등 국책사업)이나 교육부의 각종 구조개혁 등의 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참여한 적이 없는 사서의 비율이 86.54%로 높게 나타났다. 오로지 1.92%만이 3회 이상 참여하였고, 총 13.46%만이 2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의 상황을 보면 대학 전체부서가 구조개혁이나 국책사업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학도서관은 이와 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표 7> 참조).

이에 대해 성별, 소속대학 도서관 유형별,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성별인식 차이에서는 전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참여 경험 및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속대학 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학도서관 사서의 90.91%가 참여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그나

<표 6>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항목	N	%	M	Std
전혀 그렇지 않다	1	0.96	4.019	0.800
그렇지 않다	3	2.89		
보통이다	17	16.35		
그렇다	55	52.89		
매우 그렇다	28	26.92		
합계	104	100.00		

〈표 7〉 도서관 직원으로서 각종 사업 및 교육부의 각종 구조개혁 등의 위원회 참여

항목	N	%	M	Std
없다	90	86.54	1.240	0.690
1회	6	5.77		
2회	6	5.77		
3회	1	0.96		
4회 이상	1	0.96		
합계	104	100.00		

마 사업참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 값은 0.000으로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자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일하기에 좋은 나이 또는 시대적 변화환경 등이 반영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3.4 대학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운영

대학도서관은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교육부의 구조개혁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없다고 57.6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4회 이상 제공한다는 비율은 6.7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평균도 1.740으로 2점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취업지원처,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양학부 등이 다양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온 것은 아직도 역할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자원 활용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역할강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표 8〉 참조).

이에 대해 성별, 대학도서관 유형별,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 응답자가 있는 도서관이 좀더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이 1.800으로 가장 높게 대학사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 전문대학도서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교육부의 구조개혁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 여부

항목	N	%	M	Std
없다	60	57.69	1.740	1.123
1회	26	25.00		
2회	10	9.62		
3회	1	0.96		
4회 이상	7	6.73		
합계	104	100.00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25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4 대학의 환경변화가 대학도서관 역할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학의 환경변화가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즉,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동의정도(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요구하는 서비스, 대학도서관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의 문제들, 강화되어야 할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도서관의 역할변화가 소속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대학도서관의 위상강화를 위해 역할변화 노력 등이다.

4.4.1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미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평균으로 보았을 때 학력인구 및 대학정원감소가 4.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부의 대학인증평가, 전자책 및 전자자원 확대, 디지털 교육 일반화, RFID, NFC, QR 코드 등 모바일환경지원 기술의 발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조경제의 무한상상실 사업, 대학생의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문제,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등은 가장 하위 순위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은 지금까지 대학 내에서 주변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지원, 학습지원, 전공 및 교양 지원,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통해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의미있게 해낼 수 있는 기관이다(〈표 9〉 참조).

한편,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에 영향을 주는

〈표 9〉 대학도서관 역할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M	순위	Std
	N	%	N	%	N	%	N	%	N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2	1.92	6	5.77	26	25.00	53	50.96	17	16.35	3.740	6	0.870
교육부의 대학인증평가	1	0.96	4	3.85	21	20.19	58	55.77	20	19.23	3.885	2	0.792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9	8.65	13	12.50	43	41.35	36	34.62	3	2.89	3.106	13	0.965
ACE, CK, LINC 등 각종 국책사업	3	2.89	11	10.58	43	41.35	44	42.31	3	2.89	3.317	11	0.816
교수에 대한 대학의 연구과제 수주 요구	4	3.85	11	10.58	46	44.23	38	36.54	5	4.81	3.279	12	0.864
창조경제의 무한상상실 사업	8	7.69	22	21.15	54	51.92	19	18.27	1	0.96	2.837	15	0.849
역량기반 학생역량 강화 요구	3	2.89	6	5.77	34	32.69	56	53.85	5	4.81	3.519	8	0.800
학령인구 및 대학정원 감소	1	0.96	1	0.96	14	13.46	57	54.81	31	29.81	4.115	1	0.741
대학생의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문제	3	2.89	26	25.00	47	45.19	25	24.04	3	2.89	2.990	14	0.853
다문화 학생 및 외국인 학생 증가	0	0.0	8	7.69	47	45.19	41	39.42	8	7.69	3.471	10	0.750
디지털교과서의 급격한 보급	2	1.92	10	9.62	37	35.58	45	43.27	10	9.62	3.490	9	0.870
전자책 및 전자자원 확대로 디지털 교육 일반화	1	0.96	4	3.85	25	24.04	54	51.92	20	19.23	3.846	3	0.810
디지털기술 기반 교육 일반화	1	0.96	4	3.85	26	25.00	57	54.81	16	15.39	3.798	5	0.781
RFID, NFC, QR 코드 등 모바일환경지원 기술의 발전	0	0.0	4	3.85	26	25.00	58	55.77	16	15.39	3.827	4	0.730
학생데이터 및 연구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0	0.0	7	6.73	39	37.50	49	47.12	9	8.65	3.577	7	0.746

요인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이 4건으로 나타났고, 이용자(5건), 정책(5건), 재정(4건), 도서관에 대한 인식(4건), 공간(2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성별, 대학유형별,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간 인식차이를 가장 크게 보인 항목은 창조경제의 무한상상실 사업 및 RFID, NFC, QR 코드 등 모바일환경지원 기술의 발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영향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위 2개를 포함하여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전자책 및 전자자원 확대로 디지털 교육 일반화, 디지털기술기반 교육일반화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는 평균 3.619로 남자의 3.384보다 대학도서관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집단간 인식차이를 가장 크게 보인 항목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로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로 3.933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도서관,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을 보았을 때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이 3.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이 3.488, 전문대학도서관이 3.387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단간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역량기반 학생역량 강화 요구, 디지털기술 기반 교육 일반화, 전자책 및 전자자원 확대로 디지털 교육 일반화, RFID, NFC, QR 코드 등 모바일 환경지원 기술의 발전 등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경력별 인식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력별 평균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경력 5년 미만이 3.708로 영향관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고 2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4.4.2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요구하는 서비스

설문응답자인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이용자가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를 가장 높게 요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스마트 교육환경 지원, 디지털독서환경 제공, 역량기반 학습을 위한 정보원 및 프로그램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내 무한상상실 설치 및 확대, 정부 3.0에 의해 공개된 각종 공공데이터 활용방법서비스, 디지털큐레이션 교육프로그램 제공, 부적응 학생을 위한 독서치료 및 이탈 방지 프로그램 제공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3.0 이상의 동의 정도를 보여주었다(〈표 10〉 참조).

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에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공간확대 및 기능변화, 신규서비스 확대 등이며, 특히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이용자의 대학도서관에의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여자는 평균 3.546으로 남자의 3.45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인식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즉 역량기반 학습을 위한 정보원 및 프로그램 제공에서 여자는 3.831 정도로 동의했으나 남자는 3.622로 나타났고, 부적응 학생

〈표 10〉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요구하는 서비스 동의정도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M	순위	Std
	N	%	N	%	N	%	N	%	N	%			
MOOC 및 KOCW 등의 온라인 강좌에 대한 접근 증대	2	1.92	4	3.85	44	42.31	48	46.15	6	5.77	3.500	10	0.750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서비스 및 대학교육에서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전략	1	0.96	5	4.81	45	43.27	45	43.27	8	7.69	3.519	9	0.750
대학도서관 내 무한상상실 설치 및 확대	2	1.92	20	19.23	53	50.96	26	25.00	3	2.89	3.077	20	0.797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	0	0.0	1	0.96	23	22.12	65	62.50	15	14.42	3.904	1	0.631
디지털기술 기반 교육 인프라 제공	1	0.96	1	0.96	33	31.73	60	57.69	9	8.65	3.721	6	0.675
최첨단 디지털장비의 체험공간 제공	2	1.92	5	4.81	32	30.77	51	49.04	14	13.46	3.673	7	0.841
역량기반 학습을 위한 정보원 및 프로그램 제공	2	1.92	3	2.89	29	27.89	56	53.85	14	13.46	3.740	4	0.800
연구데이터 분석 및 제공	1	0.96	5	4.81	47	45.19	37	35.58	14	13.46	3.558	8	0.822
학생에 대한 각종 데이터 분석 및 제공	2	1.92	11	10.58	48	46.15	33	31.73	10	9.62	3.365	16	0.871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설계 지원	2	1.92	6	5.77	50	48.08	36	34.62	10	9.62	3.442	11	0.822
디지털플랫폼 활용한 글쓰기 역량 지원	2	1.92	8	7.69	51	49.04	33	31.73	10	9.62	3.394	14	0.841
스마트 교육환경 지원	1	0.96	1	0.96	25	24.04	60	57.69	17	16.35	3.875	2	0.720
디지털독서환경 제공			4	3.85	25	24.04	59	56.73	16	15.39	3.837	3	0.726
디지털인문역량강좌 지원	1	0.96	9	8.65	48	46.15	36	34.62	10	9.62	3.433	12	0.822
디지털큐레이션 교육프로그램 제공	2	1.92	17	16.35	54	51.92	24	23.08	7	6.73	3.163	18	0.849
정부 3.0에 의해 공개된 각종 공공데이터 활용방법 서비스	5	4.81	17	16.35	51	49.04	24	23.08	7	6.73	3.106	19	0.923
학술커뮤니케이션 및 지적재산권서비스	2	1.92	11	10.58	39	37.50	45	43.27	7	6.73	3.423	13	0.844
부적응 학생을 위한 독서치료 및 이탈 방지 프로그램 제공	1	0.96	14	13.46	54	51.92	28	26.92	7	6.73	3.250	17	0.810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0	0.0	5	4.81	31	29.81	54	51.92	14	13.46	3.740	4	0.750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	1	0.96	10	9.62	49	47.12	37	35.58	7	6.73	3.375	15	0.791

을 위한 독서치료 및 이탈 방지 프로그램 제공에서 여자는 3.356으로 남자의 3.1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두 항목에서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자가 남자보다 대학도서관 밖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더 민감하고 더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소속도서관 유형별로 보았을 때,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가 이용자의 대학도서관에의 요구사항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간 인식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 최첨단 디지털

장비의 체험공간 제공, 스마트 교육환경 지원, 디지털독서환경 제공,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경력별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15년 미만인 3.6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년 이상~25년 미만 3.568, 25년 이상 3.51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이용자 요구 서비스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 디지털기술 기반 교육 인프라 제공, 최첨단 디지털장비의 체험공간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4.4.3 대학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기여도

대학도서관은 대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학생의 정보자원 및 기술의 활용능력 향상(4.0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4.019), 대학구성원의 연구능력 향상(3.990),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상(3.923)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이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공간재구성을 통한 학교 복지문화 공간역할, 컴퓨터로서의 공간,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편안히 머무는 공간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학습능력 향상, 정보자원 활용능력,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별, 대학도서관 유형별,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가 3.840으로 남자의 3.68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 비교에서는, 4년

제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이 3.866으로 가장 높게 대학도서관의 기여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 인식차이 비교에서는,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3.9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미만 경력자 3.912, 25년 이상 3.888순으로 대학도서관의 기여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상이 0.035로 나타났다.

4.4.4 대학도서관 사서가 강화해야 할 역할

대학도서관 사서가 기존의 역할 외에 어떤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연구 및 학업을 위한 일대일 주제전문서비스 전문가적 역할이 3.9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행태 분석 및 서비스 전문가적 역할 3.923, 전자책 및 정보자원 관리전문가적 역할 3.798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관리전문가적 역할은 3.1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1〉 대학도서관의 대학문제 기여도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M	순위	Std
	N	%	N	%	N	%	N	%	N	%			
부적응 학생의 이탈 감소(소통, 공감, 독서 등을 통해)	1	0.96	10	9.62	60	57.69	32	30.77	1	0.96	3.212	7	0.664
다문화 학생 및 외국인 학생의 조기 적응	0	0.0	6	5.77	49	47.12	44	42.31	5	4.81	3.462	6	0.682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	0	0.0	1	0.96	14	13.46	71	68.27	18	17.31	4.019	2	0.591
학생의 정보자원 및 기술의 활용능력 향상	0	0.0	2	1.92	15	14.42	65	62.50	22	21.15	4.029	1	0.660
학생의 종합적 사고력 향상(의사소통, 인성, 지식탐구능력, 주도성 등)	0	0.0	2	1.92	32	30.77	56	53.85	14	13.46	3.788	5	0.692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상	0	0.0	0	0.0	24	23.08	64	61.54	16	15.39	3.923	4	0.618
대학구성원의 연구능력 향상	0	0.0	2	1.92	17	16.35	65	62.50	20	19.23	3.990	3	0.661

〈표 12〉 대학도서관 사서가 강화해야 할 역량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M	순위	Std
	N	%	N	%	N	%	N	%	N	%			
데이터 분석가	1	0.96	7	6.73	40	38.46	49	47.12	7	6.73	3.519	5	0.763
이용행태 분석 및 서비스 전문가	1	0.96	1	0.96	21	20.19	63	60.58	18	17.31	3.923	2	0.706
연구 및 학업을 위한 일대일 주제전문서비스전문가	2	1.92	2	1.92	16	15.39	62	59.62	22	21.15	3.962	1	0.787
디지털 큐레이터	1	0.96	8	7.69	48	46.15	41	39.42	6	5.77	3.413	6	0.758
디지털교육 전문가	2	1.92	8	7.69	43	41.35	48	46.15	3	2.89	3.404	7	0.757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관리전문가	1	0.96	16	15.39	57	54.81	29	27.89	1	0.96	3.125	8	0.706
전자책 및 정보자원 관리전문가	0	0.0	5	4.81	22	21.15	66	63.46	11	10.58	3.798	3	0.688
도서관 공간기획전문가	1	0.96	4	3.85	28	26.92	58	55.77	13	12.50	3.750	4	0.760

그 외 대학도서관 사서가 강화해야 할 역량 및 역할로 전문성 강화, 언어능력, 소통능력, 행정능력 등이 제안되고 있는데, 사서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위에서 제시되는 능력 외에도 다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사서가 기존의 역할 외에 어떤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성별, 대학도서관 유형별,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자가 3.670으로 남자의 3.5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2개 항목으로, 이용행태 분석 및 서비스 전문가는 0.007, 연구 및 학업을 위한 일대일 주제전문서비스전문가 0.009로 나타났으며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으로 보았을 때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가 3.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3.621, 전문대학도서관 3.517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데이터분석가 0.009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15년이상 20년 미만 경력자가 3.7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전자책 및 정보자원 관리전문가 역할로 0.007로 나타났다.

4.4.5 도서관의 역할변화가 소속대학에 기여하는 정도

도서관의 역할변화가 소속 대학의 기여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66.35%가 이러한 역할변화가 소속대학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고, 오직 2.89%만이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으며, 평균은 3.76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또한, 성별 인식차이를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 여자 3.797, 남자 3.711로 거의 비슷하며 유의도값도 0.734로 집단간 인식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조사하였으며, 4년제 대학도서관이 3.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의 역할변화는 소속 대학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고 전문대학

〈표 13〉 도서관의 역할변화가 소속 대학에 기여 정도

항목	N	%	M	Std
전혀 동의하지 않음	0	0.0	3.76	0.704
동의하지 않음	3	2.89		
보통	32	30.77		
동의함	56	53.85		
매우 동의함	13	12.50		
합계	104	100.00		

도서관이 3.69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조사하였으며, 25년 이상이 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년 이상~20년 미만 경력자가 3.909, 10년 이상~15년 미만 3.88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6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 의지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대학도서관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역할변화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겠는지에 대해, 88.47%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응답하였고, 104명 중 1명만이 노력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4.106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표 14〉 참조).

이에 대해 성별, 도서관유형별, 근무경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여자가 4.169로 남자의 4.02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p*값은 0.642로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이 4.143,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 4.121, 전문대학도서관 4.056으로 나타났다며 거의 인식차이가 없었다. *p*값도 0.944로 집단간 인식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서의 경력별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15년 이상~20년 미만이 4.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년 이상이 4.143, 20년 이상~25년 미만이 4.036으로 나타났다. *p*값은 0.343으로 집단간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대학도서관 위상을 위한 역할변화의 노력 정도

항목	N	%	M	Std
절대 노력 안함	0	0.0	4.106	0.606
노력 안함	1	0.96		
보통	11	10.58		
노력함	68	65.39		
매우 노력함	24	23.08		
합계	104	100.00		

5. 결론 및 향후과제

5.1 논의 및 결론

대학도서관은 모체 기관에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Anderson, 2011). 즉 대학이 대학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예산삭감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모체기관인 대학에 몰아닥친 위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존재하는 기관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임을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 환경변화 및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 등의 문제가 대학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질문이 제기되었으며,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 평가 및 평가지표,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가치,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기능변화 등을 비교적 깊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각종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내외 각종 대학평가, 현재의 교육부의 관심사인 역량기반 대학교육의 변화와 대학도서관 역할변화, MOOC 및 KOCW 등이 중간 순위 이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대학의 KOCW는 중앙일보평가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MOOC의 활성화는 교육부의 대학교육 공개정책의 하나로 BK21 사업에서 높은 추가가산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은 이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대학도서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 이외에도 모체 기관인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학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의 환경변화,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 각종 국책사업, 각종 구조개혁이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모체기관의 환경변화와 대학도서관은 관련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서는 104명 중 5명, 4.81%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들은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85%로 매우 낮다. 그리고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유형보다, 경력이 많을수록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대학의 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들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구조개혁평가에서 학교가 학생의 역량강화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산출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서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생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고 이를 통해 본부에 도서관의 존재감과 가치를 부각시켜야 한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의 직원으로서 소속 대학의 각종 사업(ACE, LINK, CK 등 국책사업)이나 교육부의 각종 구조개혁 등의 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이 86.54%로

상당히 높고,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학력인구 및 대학정원감소를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의 대학인증평가, 전자책 및 전자자원 확대에 디지털 교육 일반화, RFID, NFC, QR 코드 등 모바일환경지원 기술의 발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조경제의 무한상상실 설치 및 운영, 대학생의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문제,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등은 가장 하위 순위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문제를 가장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는 학과나 학사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대학에서는 부적응, 친구관계맺기 실패, 전공적성 등 다양한 문제가 학생이탈과 관련이 있고 도서관이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ell, 2008).

넷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가장 높게 요구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용자는 전자책 및 정보자원의 확대를 가장 높게 요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스마트 교육환경 지원, 디지털독서환경 제공, 역량기반 학습을 위한 정보원 및 프로그램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다분히 전통적인 도서관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학의 많은 부서들이 역할변화 및 역할확대를 통해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듯이 대학도서관 사서들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서관의 역할확대를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로 소속대학의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학생의 정보자원 및 기술의 활용능력 향상,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 대학구성원의 연구능력 향상, 대학구성원 학습역량 향상 순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교육부를 포함한 취업현장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K-CESA(대학생핵심역량진단시스템)의 경우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여 역량강화 및 진로개발을 지원하고 대학에는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의사소통역량, 자원정보, 기술의 활용역량,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역량,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역량 등이다. 대학도서관은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의사소통역량, 자원정보, 기술의 활용역량, 대인관계역량, 종합적 사고력 등의 역량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의 학습역량 및 교수의 연구역량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인지는 심도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대학도서관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역할변화의 노력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88.47%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응답하였고, 104명 중 1명만이 노력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4.106으로 높게 나타났다.

5.2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인식 개선을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도서관 안에서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모체기관인 대학본부에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체기관인 대학본부에 소속된 직원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에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인식을 조사할 필요

가 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자체가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둘째,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에 가장 높게 요구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사서와 이용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집단간 서비스의 매칭은 도서관의 활용률을 높이고 이용자의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자 대상 설문을 수행함으로써,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및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사서집단과 이용자 집단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용근 (2003). 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2), 297-315.
- 노영희 (2014a). 도서관 무한창조공간 구축 및 운영모형 제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53-76.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1.053>
- 노영희 (2014b). 차세대디지털도서관의 발전방향논의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2), 7-40.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2.007>
- 노영희 (2014c). 차세대디지털도서관서비스에 대한 Y세대 이용자의 요구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3), 29-63.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3.029>
- 노영희 (2016). 정부 3.0에 대한 도서관 사서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51-80.
- 송민 (2014.7.1). 빅데이터 시대, 도서관의 도전과 변화.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활용 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 안인자, 최상기, 노영희 (2014). 도서관 무한창조공간의 개념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2), 143-171.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2.143>
- 이상주 (2013).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지방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전산회계연구, 11(2), 83-109.

- 이혜영 (2015). 한국에서의 대학도서관 연구동향. 정보관리학회지, 32(2), 153-165.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2.153>
- 정재영, 박진희 (2011).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171-191.
-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0). Top ten trends in academic libraries: A review of the current literature. Retrieved from
<http://thescholarship.ecu.edu/bitstream/handle/10342/2838/ACRL%20Top%20Trends.pdf?sequence=1&isAllowed=y>
-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2). Top ten trends in academic libraries: A review of the trends and issues affecting academic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73(6), 311-320. Retrieved from
<http://crln.acrl.org/content/73/6/311.full>.
-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3). Environmental scan 2013. Retrieved from
<http://www.ala.org/acrl/sites/ala.org.acrl/files/content/publications/whitepapers/EnvironmentalScan13.pdf>
- ACRL Research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2014). Top trends in academic libraries: A review of the trends and issues affecting academic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75(6), 294-302. Retrieved from
<http://crln.acrl.org/content/75/6/294.full#sec-9>
- ALA (2014, February 4). Four local libraries honored for offering cutting-edge services. Retrieved from
<http://www.ala.org/news/press-releases/2014/02/four-local-libraries-honored-offering-cutting-edge-services>
- Anderson, R. (2011). The crisis in research librarianship.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7(4), 289-290. <http://dx.doi.org/10.1016/j.acalib.2011.04.001>
- Bell, S. (2008). Keeping them enrolled: How academic libraries contribute to student retention. Library Issues, 29(1), 1-4.
- Bell, S. (2015, February 18). Top 10 Academic library issues for 2015. Library Journal. Retrieved from
<http://ljl.libraryjournal.com/2015/02/opinion/steven-bell/top-10-academic-library-issues-for-2015-from-the-bell-tower>
- Bell, S. J. (2009). Online or out the door: Continuous learning for academic librarians in economic downturns. Library Issues, 29(5), 118-124.
- Camoprodon, G., Bigazzi, S., Pineda, P., Tham, C., & Sullinai M. (2013). Samples of ongoing experiences in Europe. Coworking Europe Conference, Bardelona, November 2013.

- Europeana Connect (2011). Europeans collections. Retrieved from <http://www.europeana.eu/>
- Hamrick, F. A., Schuh, J. H., Shelley, I. I., & Mack, C. (2004). Predicting higher education graduation rates from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resource allocation. *Education Policy Analysis Archives*, 12(19), 1-23. <http://dx.doi.org/10.14507/epaa.v12n19.2004>
- Kroski, E. (2009). On the move with the mobile web: Libraries and mobile technologies. *Library Technology Reports*, 44(5), 1-48.
- Macdonald, S., & Martinez-Urbe, L. (2010). Collaboration to data curation: Harnessing institutional expertise. *New Review of Academic Librarianship*, 16(S1), 4-16. <http://dx.doi.org/10.1080/13614533.2010.505823>
- Mathews, B. (2012). Think like a startup: A white paper to inspire library entrepreneurialism. Retrieved from <http://hdl.handle.net/10919/18649>
- McGettigan, L. (2013). Unafraid of the future-Edinburgh's next generati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FLA WLIC. Retrieved from <http://library.ifla.org/103/1/081-mcgettigan-en.pdf>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Inc.
- Mezick, E. M. (2007). Return on investment: Libraries and student retention.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3(5), 561-566. <http://dx.doi.org/10.1016/j.acalib.2007.05.002>
- Noh, Y. (2015). Imagining library 4.0: Creating a model for future librarie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1(6), 786-797. <http://dx.doi.org/10.1016/j.acalib.2015.08.020>
- Primary Research Group (2008). Survey of student retention policies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Primary Research Group.
- Roscorla, T. (2013, April 17).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opens access to resources. GovTech. Retrieved from <http://www.govtech.com/e-government/Digital-Public-Library-of-America-Opens-Access-to-Resources.html>
- Russell, J. (2014, April 29). Coursera launches a program to crowd-translate its online classes into new languages. TNW. Retrieved from <http://thenextweb.com/insider/2014/04/29/coursera-launches-a-program-to-crowd-translate-its-online-classes-into-new-languages/#gref>
- The British Library (2011, June 20). The British Library and Google to make 250,000 books available to all. Retrieved from <http://www.bl.uk/press-releases/2011/june/the-british-library-and-google-to-make-250000-books-available-to-all>

The Economist (2010, February 25). Data, data everywhere. Retrieved from
<http://www.economist.com/node/15557443>

Thorin, S. E., & Greenstein, D. (2002). The digital library: A biography. Digital Library Federation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1-70.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Ahn, In-Ja, Choi, Sang-Ki, & Noh, Young-Hee (2014). A study on establishing creative zones
and creative zone programm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2), 143-171.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2.143>

Chung, Jae-Young, & Park, Jin-Hee (2011). Analysis of the trends in the field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171-191.

Kim, Young-Gun (2003). Practical issues faced by university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2), 297-315.

Lee, Sang-Joo (2013). Higher education policy and strengthen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Centered on local private universities.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s and Accounting,
11(2), 83-109.

Noh, Young-Hee (2014a). A study on creating and managing "Makerspac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53-76.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1.053>

Noh, Young-Hee (2014b). A study suggest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ext generation
digit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2), 7-40.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2.007>

Noh, Young-Hee (2014c). A study analyzing Y generation users' needs for next generation digital
libra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29-63.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3.029>

Noh, Younghee (2016). A study on librarians' perception about government 3.0.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2), 51-80.

Rhee, Hey-Young (2015). A trend of research topics on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2), 153-165.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2.153>